지 상 법 석

"불보살행 따라합시다"

"내 몸안에 제불보살 모습 있으니
온 마음 모아 명호부르고
그 행을 그대로 받들어 행하면
아미타불도 문수보살도 될 수 있어요"

대목이 나옵니다. 나는 그 대목을 읽고 매우 큰 감명을 받았고 내 몸도 소신공양(燒身供養)하리라 서원을 세웠습니다. 소신공양의 목적이 이 몸의 허상을 버리는 데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견보살의 서원처럼 불은에 보답하고 모든 중생이 괴로움과 병환을 여의고 나고 죽는 일의 얽힘으로부터 벗어나 무생법인을 증득하길 염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소신의 원을 세운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여기에 이르렀지만 그 원을 실천 하고자 하는 마음에는 한치의 오차가 없습니다. 다만 나 스스로 그니다. 그리고 50여년전 개운사에서 한 노스님이 칠성각 앞에 장작을 쌓아 놓고 소신을 했는데 손상좌가 급히 노스님을 끌어내려 원을 이루지 못하고 화상만 입는 모습을 보았기에 혹 나도 생각지 못한 방해를 받을까 염려 됩니다. 또 소신이 확실히 되지 않으면 다시 다비를 해야 하니 번거로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소신공양을 공개하여 내 간절한 서원이 이뤄져 불보살님 은혜를 갚을 수 있길 바라는 것입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내가 이 허망한 몸뚱아리를 태워 공양함으로 수 많은 중생들이 기쁨을 얻고 분단된 나라가 하나로 합쳐지고 사회다. 몸이라는 옷도 유한이고 물체라는 형상도 유한입니다. 무한을 싸고 있는 유한을 깨고 그 무한생명의 참 모습을 아는 것이 성불입니다. 그러기 위해 염불을 하라는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을 부르고 아미타불을 부르고 제불보살을 부르라는 겁니다. 그 거룩한 이름을 입으로만 불러서는 안됩니다. 온 마음을 모아 지극하게 불러야 합니다. 지극한 부름에는 응당한 답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젊은 시절 나라 잃은 서러움을 중국 대륙의 연변과 장춘 하얼빈등지에서 실컷 맛 보았습니다. 더러 탁발을 나가면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맑고 고운 소리를 듣는 것이 모든 중생의 소원이 아닙니까.

우리들이 부처님께 귀의 했다고 말하는데 귀의한 그 순간 우리의 몸은 제불보살님의 외호를 받게 됩니다. 마음이 산란하여 제불보살의 위신력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몸은 이미 보살이요 부처라는 얘기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보살을 염하고 부처님을 부르는데 어리석은 중생으로 살아갈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성불을 위해서는 앞에서 말했듯이 지혜를 가꾸어야 합니다. 한량없는 믿음의 마음으로 신실된 삶을 누리며 지혜를 가꾸어야 합니다. 불보살의 명호를 부르고 참선을 하고 경전을 읽고 주력을 하여 튼튼한 지혜의 성을 쌓아 열반의 기쁨을 맛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불자들은 그 기쁨을 위해 늘 노력 정진하며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소신공양으로 불보살의 은혜를 갚고자 하는 서원이 있어 이 나이든 납자도 오늘의 삶이 허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꾸 소신공양 얘기를 하니까 무서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마음이 정해지면 편안하기 그지 없음을 아시고 방해나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극락세계가 멀리 있지 않고 아미타불이 따로 있지 않으니 지금 인간 중생이 사는

방편에 속고 목적에 욕심내면 항상 중생자리
願行으로 무량공덕 쌓으면 그곳이 극락정토

좋은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 날이 갈수록 무서운 생각도 줄어들고 조금씩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소신을 할 만큼의 근기를 키우는 일이 나의 수행이기도 합니다. 호명산에 감로암을 짓고 좌선정진 해온 것이나 서방극락교주 아미타부처님을 염불하고 관하는 것이 모두 내 서원의 실천의지를 다지는 수행인 것입니다.

특히 나는 〈관무량수경〉의 6관법 중 제1관인 일상관(日想觀)을 참구해 왔습니다. 일상관의 참구를 두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와 중생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한 곳에 모아 서쪽을 생각하라.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아니고 눈이 있는 자는 누구나 해가 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니 서쪽을 향하여 단정히 앉아 지는 해를 똑똑히 바라보라. 그리고 생각을 움직이지 말고 곧 지는 해가 마치 서쪽하늘에 매달아 둔 북(鼓)과 같음을 보도록 하라. 해를 보고 난 후에도 눈을 감으나 눈을 뜨나 그 모습이 한결같이 보이도록 하라."

내가 소신공양의 원을 공개하는데는 몇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나 혼자 몰래 하다가 산불이라도 날까 걱정되기 때문입도 안녕하고 헐벗고 괴로운 사람이 없어질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의 뜻을 모르고 상좌들이나 신도님들이 자꾸 말려서 큰 일입니다. 그래도 나는 서원을 이루고 말 것입니다.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도 몰래 혼자라도 이루고 말 것입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내 행동이 가당치 않은 것임을 잘 압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제자로서 부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변함이 없으니 누구도 방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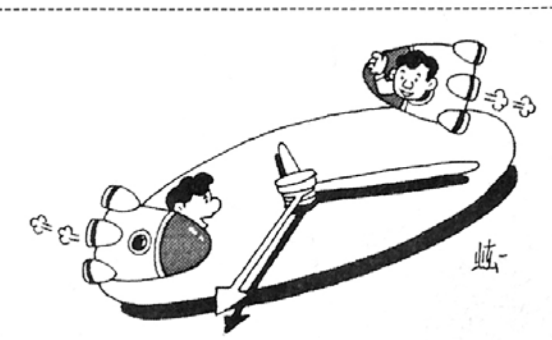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만약 단한번 아미타불을 생각만 해도 팔십억겁 동안 지은 무거운 죄가 능히 소멸된다 했습니다. 간절히 부처님을 불러야 합니다. 그 부처님을 부르는 사이사이에 우리도 부처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백명이 앉아 참선을 하여 한사람 득도하기는 어려워도 만 사람이 모여 염불을 하면 만 사람이 모두 서방극락에 왕생 한다고 했습니다. 그 서방극락이란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곳인데 그곳에서 아미타 부처님을 친견하고 정수리에 수기를 받아 성불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유한합니다. 아니 생명 자체는 무한이되 그 생명의 껍데기는 유한입니루에 음식을 주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배고픔보다 서러운 것이 나라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별이 총총한 이국의 들판에서 나는 염불로 밤을 세운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조국의 해방을 염원하며 객지를 떠돌며 해방된 조국에서 부처님 법의 바퀴를 굴리는 비원을 키웠던 것입니다. 6.25전쟁때도 나는 산더미 같은 시체 속에서 염불로 살아 났습니다.

"나는 이 허망한 몸뚱아리
소신공양 하여
사회안녕과 조국통일을
염원할 것 입니다"

염불 간경 참선 주력의 여러 방편이 다 성불을 위한 것입니다. 어느것이 좋고 나쁘다고 분별할 것이 아닙니다. 다 좋습니다. 무엇이든 일심으로 정진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게 좋으냐 저게 좋으냐를 따지고 정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효용이 없습니다. 방편이란 그런 것입니다. 염불도 수행이고 참선도 수행입니다. 간경도 수행이고 주력도 수행일뿐 그 자체가 성불은 아닙니다. 그 모든 과정을 뛰어 넘은 자리에 열반의 기쁜 종소리곳을 더럽히지 않으면 이곳이 극락이고 마음을 잘 닦으면 이 모습이 아미타불이니 부디 게으름 피지 말고 수행 정진하여 성불의 대도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방편에 속지 말고 목적에 욕심내지 말며 마음을 비우고 비워 무량청정 불국토를 이루십시오.

나는 내 살아 온 과정을 되짚어 보건대 여러분께 아미타 부처님을 일심으로 염하는 염불을 권하고 싶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한량없는 국토에 태어나길 발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발원이 성취되게 하려면 무량의 공덕을 지어야 하고 무량의 수행정진을 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야 무량청정의 아미타 국토가 펼쳐집니다.



과학속의 불교 ─ 불교속의 과학 85

김 성 구

반야심경과 물리학 ㉒

'…시고공중 무색무수상행식…'이라고 설함으로써 색수상행식의 오온이 다 없는 것이라고 한다. 우리의 눈앞에는 삼라만상이 보는 바와 같이 전개되어 있는데 경전은 이 모든 것이 없다고 말한다.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이 신기루 같은 것이요 이 신기루를 보고 느끼는 정신작용도 모두 신기루같은 것이라고 한다. 수상행식의 정신작용에 대한 주체는 아(我)다. 그런데 경전은 수상행식의 정신작용이 다 신기루같은 헛것이라고 한다. 경전은 '아'를 객관적 실체로서 인정하지 않는다. 무색이고 '아'가 헛것이니 우리가 일상의 경험적 세계에서 보고 느끼는 모든 것은 결국 존재하지도 않는 '나'가 존재하지도 않는 세상을 보고 느끼는 것이 된다. 경전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다.

경전이 말하는 것, '색도 없는 것', '아도 없는 것'이라는 말의 뜻은 허무를

색수상행식

심경의 관점 "我는 객관적 실체아니다"
상대성이론 "我떠나 현상 논할 수 없다"

뜻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지로 보는 물질계와 분별지로 판단한 '아'가 없다는 것임은 물론이다. 주와객으로 나눌 수 없는 것을 '아(我)'에 집착하여 아를 내세우다보니 아에 대하여 객이 나타나 삼라만상을 전개한 것이 우리가 보는 물질계인데 이 물질계의 본질이 무엇인지 따지고 있는 것이 물리학이다. 따져 본 결과 현대물리학의 토대가 되는 양자역학에서는 객관적 실체를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다. 우리가 보는 것은 그렇게 보도록 창조해서 보는 것이라고 양자역학은 설명하는 것이다. 물리학은 분별지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공(空)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색(色)이라고 할만한 실체가 따로 없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심경의 내용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양자역학은 시공간의 성질에 관해서는 특별한 연구를 하지 않았다. 시공간의 성질에 관해 무엇인가를 말해 줄 수 있는 것은 상대성이론이다.

동시성, 시간의 길이, 공간의 길이 이 모든 것이 그것들을 측정하는 관찰자의 입장에 따라 다 다르게 나타나고 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다 옳은 것이라는 것은 이미 설명하였다. 이 사실, 모든 것이 다 상대성을 갖는다는 사실은 관찰자와 관찰대상은 분리시킬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색이 무엇인지 무색이 무엇인지를 논하기 전에 우리가 관찰하고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로켓을 타고 일정한 속도로 달리고 있는 사람과 지구상에 남아 있는 사람이 측정한 시간이 다르다고 지난번에 설명하였는데 언뜻 생각하면 여기엔 모순이 따르는 것처럼 보인다. 소위 쌍둥이의 역설이라는 것이다.

일란성 쌍둥이가 하나는 A라는 로켓을 타고 다른 하나는 B라는 로켓타고 일정한 속도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A는 B가 움직이고 있으므로 B에 있는 시계가 천천히 움직이는 것으로 관측할 것이다. 그러나 B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정지해 있고 A가 움직이는 것이므로 A의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으로 관측할 것이다. 상대성이론은 둘다 옳다고 하였으므로 둘이 만났을 때 서로의 시간을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관측자의 운동상태를 알아야 한다. 서로 만나서 비교하려면 누군가가 가속운동을 하여 상대방의 로켓에 대해 정지하여야 한다. 이때 서로의 시간을 비교하면 가속운동을 한 사람의 시간이 느리게 흐른것으로 판명된다. 가속운동을 하지 않고 서로를 관측하면 서로 상대방의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으로 보이고 이것도 옳다. 물론 이 경우엔 쌍둥이가 서로 만나 누가 더 늙어 있고 누가 더 젊어져 있는지 비교할 수는 없다.

상대성이론이 말하는 것은 '아'를 떠나서 현상을 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보고 듣고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물리학의 법칙마저 '아'가 만들어 내는 것이다.

색은 아를 떠나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색을 떠나 수상행식을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 상대성 이론이 말하는 내용이다. 색이 따로 없다면 아는 따로 있는 것일까? 이것은 분별지를 바탕으로 하는 물리학이 답할 수 있는 성질의 물음은 아니나 경전은 그렇다고 말한다. 그것을 알려면 반야지를 얻으라고 한다.

〈이화여대 교수·물리학과〉

천혜의 전원주택

◉ 경기도 양평군 지제면 금액 : 7,000만원
◉ 지목: 대지(2필지), 평수 : 234평
◉ 건평 : 26평(현재 화방) 기름보일러
◉ 잠실에서 1시간 10분거리(정남향)
◉ 마당에 정자나무 2그루 잔디정원
◉ 채전도약 100평도 붙어 있음
◉ 주의경관 수려하고 옆에 계곡물이 있음

사 찰 부 지

◉ 경기도 양평군 지제면, 금액 6,500만원
◉ 지목: 준농림(田) 평수 : 1032평
◉ 진입로 및 토목공사(평탄작업해 드림)
◉ 경관이 수려하여 참선 도량및 기도도량으로 최적지
◉ 투자성도 매우 좋음, 잠실에서 1시간 10분거리 (카루나 영화 촬영장 150m 근접)

전원주택 전문업체 청산

연락처 TEL : (02) 420-5474~5 FAX : (02) 413-7295 B. B : 012-272-0025 불자 안태진 합장

난치병 치료

수백년 비전된 한방 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하고 있는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후 3년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천식, 신경성위장병, 심부전증, 관절염, 백혈병등 에 탁월한 효과

※ 당뇨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합니다.

■ 진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 주변에 병고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요?
▲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실패 한 분께 권해드립니다.

전화문의 : (053)628-9145
대구한방 : (053)564-3355

대구여래한방

"급" 땅

장소: 경남 의령군 대의면 천곡리 웅곡마을
대지: 120평, 전답: 60평 싯가: 1500만원
연락처 : ☎ 0555) 72-9395

보리수

취급품목 | 각종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화:778-5345, 팩스:777-1917

불교공예

본 불교공예에서는 20년 전통의 신용과 기술로써 각 사암의 법당을 장엄하여 천년을 기리 남을 정성을 다하여 봉사하겠습니다.

대표 임태복 합장

진도 쌍계사 : 시왕진, 불단
속초 구복암 : 천불전, 닫집, 산신각, 문짝
제주도 원각사 : 불단, 닫집, 법상등외
설악산 오세암 : 천불전
삼각산 연화정사 : 천불전, 닫집외 등
구로동 원융사 : 불단, 문짝
불교여래원 : 불단, 운각, 경탁외
망우리 보문정사 : 불단
안양 약수암 : 불단, 닫집, 천불외 다수 사찰 불사

연락처 : (0346)553-6480 011-266-6485

절터 최적지

장소 : 청평 덕현리 정남향 국도 800M 경관수려
평수 : 2785평(일부대지) 평당가격 10만원
연락처 : 0346)594-4974

神祕한 東洋哲學

신생아 작명 역학 개인지도
선남·선녀궁합,학생적성
☎738-2045,2046
현대불교신문사 앞
韓國民俗哲學研究所

탈종공고

대한불교 조계종

사찰명 : 보광사
소재지 : 울진군 온정면 금천2리 958번지
주 지 : 김월선(보덕)

상기 사찰은 귀종단의 종헌·종법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 공고함.

1996년 9월

탁자, 닫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주요불사업적
• 합천(해인사): 대적광전 법상 경상
• 의왕시(대원사): 대웅전 수미단 닫집 문짝
• 서울(백화사): 법당 수미단 웅각 복전함
• 음성(삼보사): 대웅전 문짝
• 화천(법장사): 대웅전 명부전 문짝
• 충무(삼덕사): 대웅전 수미단 법상 경탁
• 마산(진관사): 대웅전 문짝 닫집
• 포천(약천사): 대웅전 문짝 닫집
• 단양(천진사): 대웅전수미단닫집경탁경상
• 서울(학림사): 회관 불사, 그외 다수 사찰

대진(전승)공예사
핸드폰 011-282-4609
자 택 02-248-4609
공 장 0346-571-9538
호 출 012-210-1401
趙貞王 합장

동불. 탱화. 순금불사 불상제작

탱화사
주 소 : 성북구 정능3동 684-36
연락처 918-4077

탱화사 박상수 합장